영어어문교육 *제24권* 4호 2018년 겨울

5가지 장르에서 사용된 대조 연결사 'however'와 'but'의 코퍼스 분석

김 향 숙
(한양여자대학교)

Kim, Hyang-Sook (2018). A corpus-based analysis of contrastive connectors, 'however' and 'but' based on 5 genr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4), 65-87.

This study is to provide profound insights into the language use of non-native speakers related to the overuse of 'however' as a contrastive connector. It adopted the recent data from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rpus comprising five genres of ACAD(academic prose), MAGA(magazine), NEWS (newspaper), FICT(fiction), and SPOK(spoken). It then examined the connector of 'however', along with 'but' which can be replaced with 'however'. Specifically, it examined the frequency, percentage, position and usages. The results show that native speakers are found to use a higher percentage of 'but' than 'however' in all genres. 'But' is used in ACAD with 62.3%, and in all the other genres with over 90%. But 'however' is used in ACAD with 37.7% and in both MAGA and NEWS within less than 10% each. As for the position, 'but' is placed at BSC(the beginning of a sentence or clause) with a higher ratio, and 'however' is placed at BSC and ISC(inside the sentence or clause) with a lower ratio. This study also delineates some remarkable usages. Overall, the specific usages of the two connectors are foun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genre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in helping learners solve the overuse of 'however'.

[**contrastive connectors/academic prose/magazine/newspaper/fiction/spoken, 대조 연결사/학문적인 글/잡지/신문/소설/구어**]

I. 서론

본 연구는 비원어민이 원어민에 비해 대조 연결사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고광윤, 이성운, 2008; 김향숙, 2017; Lee, 2004)와 관련해 원어민 코퍼스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장르별로 연결사 'however'와 이 어휘를 대체할 수 있는 'but'의 사용 양상을 함께 분석하여 비원어민의 언어학습에 적절한 통

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결사 ‘however’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많은 연구에서 한국인 비원어민들이 이 연결사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문두에 배치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광윤, 이성운, 2008; Lee, 2004; Lee & Na, 2015; Park, 2013; Ro & Na, 2012). 이러한 문제는 교수방식, 교과서가 사용된 방식, 모국어의 전이 등으로 유발된다고 지적된다(고광윤, 2008; 고광윤, 이성운, 2008; Yoon, 2006). 한편 최근 두 연결사(however, but)를 함께 분석한 김향숙(2017)에 의하면 한국인 비원어민은 원어민에 비해 ‘however’를 대체할 수 있는 ‘but’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비원어민이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however’는 문어체에 해당하는 학문적인 글에, ‘but’은 대화 형식과 같은 구어체에 적합한 어휘로 선호되는 측면(Biber, Johansson, Leech, Conrad, & Finegan, 1999;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however’와 ‘but’은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된다. 또한 문어체라도 신문 형태(newspaper reportage)는 일어난 사건을 연결사의 사용 없이 시간 순으로 기술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결사의 사용 빈도가 학문적인 글에서보다 적은 편이다(Biber et al., 1999). 따라서 단순히 구어체와 문어체로 분류되는 선호도만으로 연결사 ‘however’의 사용 양상을 잘 익히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원어민이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 가능한 연결사인 ‘but’과 함께 살펴보는 것과 다양한 장르에 기반한 원어민의 사용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문어체와 구어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소 큰 규모의 원어민 코퍼스를 활용하여 ‘however’와 ‘but’의 사용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조 연결사 사용 양상에 대한 비원어민의 언어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조 연결사 *however* 와 *but*

먼저 대조 연결사‘however’는 독립절을 연결하는 접속부사로(Biber et al., 1999), 선행된 진술과의 의미상 대립을 표현하면서 저자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진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Conrad, 1999). 이 ‘however’는 대개 작가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는 다른 연결사들과는 달리 작가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연결사이다. 또한 선행된 진술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두에 보편적으로 위치된다(Biber et al., 1999). 하지만 사용상 주의해야 할 것은 문장 사이의 관계는 연결사를 통한 명확한 표시가 없어도 실

제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onrad, 1999). 이런 점에서 대조 연결사 'however'를 사용할 때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연결사 'however'의 사용 경향을 살펴보면, 비원어민은 이 어휘를 과소 또는 과다 사용, 문두에 과다 사용, 장르에 맞지 않은 사용, 그리고 문체의 개선 및 문장의 응집력 강화의 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Altenberg & Tapper, 1996; Chen, 2006; Field & Yip, 1992). 특히 한국인은 원어민에 비해 이 어휘를 높은 빈도로 사용하면서 문두에 과다하게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광윤, 2008; 고광윤, 이성운, 2008; 김향숙, 2017; Back, 2012; Kim & Ahn, 2012; Lee, 2004; Lee & Na, 2015; Park, 2013; Ro & Na, 2012; Yoon, 2006). 이러한 문제는 학습자의 잘못된 사용습관, 모국어의 전이, 교과서가 기술된 방식, 교수 방식 등에 의해 야기된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 비원어민이 원어민에 비해 연결사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예(Lee, 2004)는 한국인 대학생이 작성한 에세이와 Brown 코퍼스[1]를 비교한 것이며, 두 번째 예(고광윤, 2008)는 고등학교의 7종 영어 교과서와 Frown 코퍼스[2]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인 비원어민이 원어민에 비해 연결사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비원어민과 원어민의 however 빈도

	코퍼스	토큰	빈도(however)	10,000 개당 빈도
1	비원어민	214,363	458	21.37
	원어민	192,190	146	7.64
2	비원어민	83,311	53	6.36
	원어민	약 100만개	55	0.55

(10,000개 당 빈도로 편집했음)

또한 위치 선호도와 관련해서, 위의 두 번째 예(고광윤, 2008)를 살펴보면 한국인 비원어민은 연결사 'however'를 문두에 64.2%, 문중에 35.8%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문두에 34.5%, 문중에 63.6%를 사용한 원어민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즉 눈에 띄는 차이로 원어민은 문중을 선호하는 반면에 비원어민은 문두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1] Brown Corpus 는 1960 년대 구축된 최초의 전자 코퍼스로 약 100 만 단어의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미국영어 코퍼스임(고광윤, 2008).
[2] Frown Corpus 는 1990 년대 다양한 장르의 약 100 만 단어로 구축된 미국영어 코퍼스임.

더 나아가 한국인 학습자들이 이 연결사의 사용에서 원어민 전문가들과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와 Na(2015)의 연구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연결사 'however'를 대부분 문두에 위치시키면서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사용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학습자가 이 연결사를 잘못 선택하여 사용한 경우이다(p. 1030).

> "Therefore, local universities need to change one-way teaching into interaction teaching such as discussion, presentation and so on. Moreover, local universities don't have enough English performed lectures, **however** English performed lecture is important to survive in globalization." (correct form: **even though**) (NNS professional corpus)

또한 Lee와 Na(2015)는 원어민과 학습자가 'however'를 연결사로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함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은 그에 대한 예로 원어민들은 이 어휘를 사용하여 의미상 대립을 표현한 반면 한국인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입장 또는 단순히 주제를 변경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이다(p. 1027).

> "The book is a perennial favorite among adolescent boys. Most boys eventually outgrow it. Some, **however**, remain devotees for life. And Mr. Ryan is one of those devotees."(NS professional corpus)

> "Thus, I thought that there is no reason to make our country impossible to reunify except the outside influence. **However**, I found one more thing to make hard our reunification."(NNS student corpus)

두 번째, 대조 연결사 'but'은 등위접속사로 문장에서 대등한 구조를 연결하는 데에 사용된다(Biber et al., 1999). 'but'이 문장이나 문절을 연결하는 경우에 사용될 때는 대조 연결사 'however'와 대체가 가능하다. Jangarun와 Luksaneeyanawin(2016)의 연구에서 원어민은 이 두 연결사를 빈도상 차이가 나지 않게 사용한 반면 비원어민의 한 그룹은 'but'의 사용빈도에 비해 'however'를 적게 사용하였고 다른 비원어민 그룹은 'however'를 'but' 보다 조금 더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Bolton, Nelson과 Hung(2012)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원어민과 비원어민 모두 'but' 보다 'however'를 더 사용하였다. 통신사(Reuters,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의 자료에서 문두에 사용한 'but'과 'however'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상위수준을 지닌 전문가들은 'however' 보다 'but'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Zwicky & Kenter, 2007). 한국인 비원어민은 연결사 'but'을 원어민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사용

하거나(Na, 2011; Min, 2011), 더 낮은 빈도로 사용한 사례(고광윤, 이성운, 2008; 김향숙, 2017) 등이 확인된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분석기준이 제각기 달라서 결과를 제대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연결사의 분석방식에 대한 학자간 합의된 원칙이 없기도 하지만(Liu, 2008), 많은 경우에 연결사 'but'이 다양한 연결사의 일부로 분석이 되면서 연구 맥락에 따라 문장 앞에 사용된 'but'만 분석이 되기도 하고 문절 앞에 사용되어 독립절을 연결하는 'but'도 함께 분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Bolton 등(2012)의 연구에서 'but'은 문장 앞에 사용된 연결사만 분석되었다.

최근 김향숙(2017)은 미국 영어 교과서와 한국 영어 교과서에서 사용된 두 대조 연결사(but, however)를 대등한 수준에서 분석하였는데, 원어민들은 'but'을 'however' 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한 반면 한국인 비원어민들은 원어민에 비해 'but' 보다 'however'를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어민들은 대체로 'however'를 문장 안에 위치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비원어민들은 'however'를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향숙은 비원어민들이 'however'를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이유가 대체 가능한 연결사인 'but'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두 연결사의 사용 용법은 학자들 간에도 다소 논쟁이 있어 보인다(김향숙, 2017). Strunk(1918)와 Garner(2009)는 'however'가 양보의 의미(in whatever way, to whatever extent)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두에 확실히 사용할 수 있으나 대조 연결사(nevertheless, but)의 의미인 경우에는 문장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Garner는 대조의 의미를 도입하기에 3음절의 'however'는 지루하면서 무거운 면이 있는데다가 어조가 강하지 않은 내용을 표현해 낸다고 지적한다. 이 어휘가 문장의 시작자리에 놓이면 비록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더라도 문체상 올바른 쓰임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반면 Pullum(2010)과 Fogarty(2013)는 'however'로 대조의 의미를 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어휘에 콤마를 붙여서 사용하면 양보의 의미로 콤마 없이 사용하는 'however'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however'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반박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원어민과는 달리 연결사 사용 양상에 대한 직관이 부족한 비원어민이 대조 연결사 'however'를 잘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however'는 문어체에 해당하는 학문적인 글에, 'but'은 대화 형식과 같은 구어체에 적합한 어휘로 선호되는 측면이 있지만(Biber et al., 1999;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일 예로 같은

문어체라도 신문 형태에서는 ‘however’의 사용빈도가 학문적인 글에서보다 적다(Biber et al., 1999). 따라서 대조 연결사 ‘however’의 사용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체 가능한 ‘but’과 함께 다양한 장르에 기반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2. 장르별 연구

코퍼스에 기반한 분석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장르(registers)[3]는 학문적인 글(academic prose), 신문(newspaper reportage), 소설(fiction), 그리고 구어(conversation), 등으로 분류된다(Biber et al., 1999; Conrad, 1999; Liu, 2008).

Biber 등(1999)에 의하면 먼저 ‘however’는 학문적인 글에 가장 보편적으로 선호된다. 학문적인 글은 작가가 주장을 제시하고 지지하는 특징이 있다. 작가는 ‘however’를 사용하여 대조되는 정보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만들어낸다. 신문에는 작가의 주장이 표현되기 보다 일어난 사건을 연결사의 사용 없이 시간 순으로 기술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신문에는 ‘however’와 같은 연결부사의 사용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학문적인 글에서 보다 그 사용 빈도가 적은 편이다. 소설에는 연결사를 활용한 연결관계가 잘 표시되지 않는 특징이 있지만 연결관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조영역의 연결부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구어 형식의 글에서는 ‘however’가 설명적인 내용에 때때로 사용되는 것으로 언급된다(Biber et al., 1999). 비슷한 맥락으로 Liu의 연구(2008)[4]에서 ‘however’는 학문적인 글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문, 소설, 구어의 순으로 사용된다. 잡지는 하나의 장르로 분석된 연구결과를 찾기는 힘들지만 책과 신문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위키백과b, 2018) ‘however’의 빈도는 학문적인 글에서 사용되는 빈도보다 적고 신문에서 사용되는 빈도보다는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장르별로 볼 때 ‘but’은 구어와 소설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 구어에는 대조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문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과 구어의 특성으로 진술의 변경 및 반박, 제안에 대한 거절, 대조적 의견 등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but’이 많이 사용된다(Biber et al., 1999). 소설은 가공된 이야기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위키백과a, 2018). 이런 대립적인 특징으로 ‘but’이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학문적인 글에

[3] 본 연구에서 ‘registers’란 용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언어, 즉 구어(conversation), 소설(fiction), 신문(newspaper reportage), 그리고 학문적인 글(academic prose) 등을 의미한다(Conrad, 1999). 따라서 이 용어(registers)가 장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장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Liu(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however’의 빈도는 학문적인 글, 기타, 신문, 소설, 구어 순이다. 기타에는 종교, 의학 등의 글이며 각각의 빈도는 알 수 없다.

는 대조를 의미하는 어휘인 'however', 'nevertheless' 'although' 등의 다양한 연결사들이 사용되기에 'but'의 사용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된다(Biber et al., 1999).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코퍼스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자료는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코퍼스의 최근 자료이다. COCA 코퍼스는 5가지 장르를 토대로 1990년부터 해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약 5억 6천 만 이상의 단어가 장르별로 고르게 구축되어 있는 현대 미국 영어 코퍼스이다. 5가지 장르는 학문적인 글(academic), 잡지(magazine), 신문(newspaper), 소설(fiction), 그리고 구어(spoken)이며 이들은 각각 하위 장르로 나뉘어져 있다. 예를 들면 학문적인 글은 교육, 역사, 인문학, 의학 등의 하위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COCA 코퍼스는 2016년과 2017년에 약 4천만 단어의 규모를 수집하였는데, 그 중 약 4백만 단어는 샘플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약 4백만 단어에 해당하는 샘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표 2
COCA 코퍼스 5 가지 장르

장르	토큰	타입	문장
SPOK	1,151,495	25,063	90,657
FICT	817,428	32,473	65,923
NEWS	781,520	32,588	40,896
MAGA	823,199	37,065	38,794
ACAD	774,005	34,931	42,965
합계	4,347,647	162,120	279,235

(위의 샘플자료는 2017년 12월 24일에 다운받은 것임)

본 연구는 콘코던스(concordance) 기능을 활용하여 연결사의 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장들을 제거한 후 상기의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COCA 코퍼스에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대략 매 200 단어마다 약 10 단어 정도가 제거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로 인해 연결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사

용된 자료는 레마(lemma)처리는 하지 않았다. 특정 단어의 굴절형태들이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Flowerdew, 2008).

2. 분석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WordSmith Tools 7.0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콘코던스를 활용하여'however'의 역할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토하여 연결사의 역할이 아닌 양보의 의미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비원어민이 무분별하게 'however'를 문두에 사용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이 어휘가 문두에 사용된 경우와 문장 안에 사용된 경우로 나누어 연결사의 위치를 분석하였다. 연결사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김향숙(2017)이 사용한 용어를 적용하였다.

>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 BSC, Beginning of a sentence or clause)
> "Many were able to return for a day or an entire weekend to participate. **However**, I returned in 2011 when the long-awaited irrigation project began and found things had changed." <ACAD, 2017: #8>

> (문장 안: ISC, Inside of a sentence or clause)
> "Proving this kind of TA requires a substantial commitment of time, money, and resources, **however**." <ACAD, 2017: #89>

'but'은 독립절을 연결하는 'however'와 대체 가능한 등위 접속사로 사용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but'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등을 연결하거나 부사나 전치사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분석대상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하나의 독립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문장은 주어와 정형동사로 구성된다(Merriam-Webster, 2017; Rower, 2013; WIKIPEDIA, 2017). 이에 따라 문장으로 인정되는 명령문이나 감탄문에 사용된 'but'은 분석에 포함시켰지만 그 외에 주어와 정형동사의 수반 없이 사용된 'but'은 분석대상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특히 구어인 SPOK와 가공된 이야기 형식으로 글에 대화가 포함된 FICT에는 주어와 정형동사가 생략된 경우가 많은데, 비록 앞 진술 등에서 함축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더라도 주어와 동사가 생략되어 문장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빈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구어의 특성상 더듬거린 경우와 주어가 반복되거나 다르게 몇 번씩 표현된 경우 등은 빈도 계산에 포함하였다.

또한 두 개의 독립절은 원칙적으로 콤마로 연결이 되지만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짧을 경우 콤마가 생략될 수도 있기에(Celce-Murcia & Larsen-

Freeman, 1999), 이렇게 짧은 문장이 이어져서 콤마가 생략된 경우와 저자의 실수로 콤마가 생략된 경우에 사용된 'but'은 일일이 검토하여 분석에 추가하였다. 아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생략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주어와 동사가 생략되어 문장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세 번째의 예시는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포함한 예시이다.

> "Sartaj Aziz, an adviser to Sharif on foreign affairs, confirmed that Sharif will meet President Trump **but** declined to comment on Afridi's case or negotiations between the nations for his release." <MAGA, 2017: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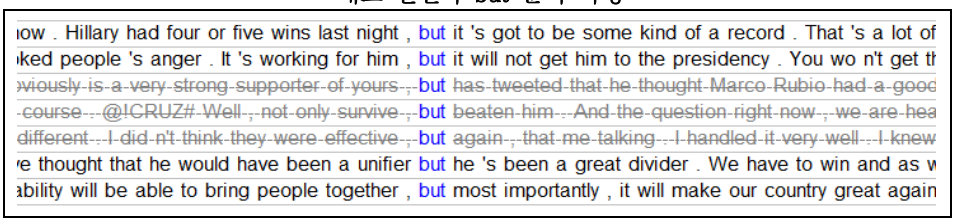
> "She was old, scholarly, stylishly dressed. "**But** not in our lifetimes. Well ... in his, of course." <FIC, 2017: #123>

>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 BSC)
> "We don't have any evidence to say that she participated or knew about it in advance, **but** she knew after the fact and was trying to protect the grandson." <SPOK, 2017: #20>

다음은 본 연구가 2016년 SPOK 자료에서 대조 연결사 'but'을 분석한 과정이다. 다음의 그림 1에서처럼 콘코던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경우를 일일이 검토하여 분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일이 줄을 그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대조 연결사 but 분석 과정



마지막으로 분석절차는 먼저 장르별로 'however'와 'but'이 사용된 빈도를 통해 전반적인 대조 연결사의 선호도를 살펴본 후 장르별 빈도 및 개별 사용 비율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조 연결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런 후 대조 연결사의 위치 비교는 김향숙(2017)의 방식에 따라 문장 또는 문

절의 시작과 문장의 안에 사용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장르 즉 학문적인 글(ACAD)과 구어(SPOK)에서 눈에 뛰는 사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Ⅳ. COCA 코퍼스 장르별 분석 결과

1. 장르별 대조 연결사(however, but) 빈도

표 3은 장르별로 단어 100,000 개당 대조 연결사가 사용된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연결사 'however'는 ACAD에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MAGA와 NEWS와 같은 문어체에도 다소 사용되었다. FICT와 SPOK에 사용된 'however'의 빈도는 상당히 적다. 이 어휘는 문어체에 많이 사용되기는 하나 그 종류에 해당하는 FICT에는 사용 빈도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ut'은 SPOK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FICT, MAGA, NEWS, ACAD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정리하면, 'however'는 다소 많이 사용되는 장르(ACAD, MAGA)가 있는 반면 'but'은 ACAD에서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체로 모든 장르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장르별 however와 but 빈도 비교

순위	however	빈도	100,000 개 당	순위	but	빈도	100,000 개 당
1	ACAD	555	71.7	1	SPOK	6,087	528.6
2	MAGA	324	39.1	2	FICT	3,805	465.5
3	NEWS	158	20.2	3	MAGA	2,952	358.6
4	FICT	78	9.5	4	NEWS	2,205	282.1
5	SPOK	55	4.8	5	ACAD	918	1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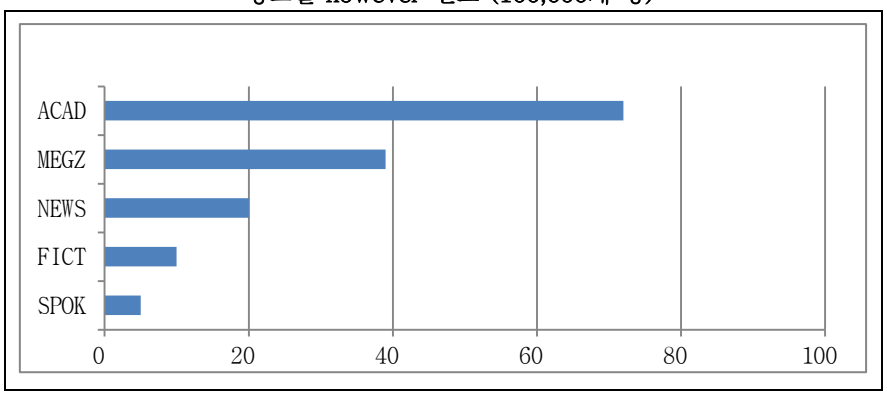
2. 장르별 빈도(however) 및 사용 비율(however, but)

먼저 그림 2는 비원어민이 연결사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이 연결사가 사용된 빈도만 장르별로 살펴본 것이다. 그림 2를 토대로 볼 때 연결사 'however'는 여러 장르 중에서 ACAD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에 기반하여 'however'만으로 대조 연

결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사용 양상에 대해 원어민과 같은 직관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대체 가능한 연결사인 'but'에 대한 고려 없이 'however'를 학문적인 글 또는 비슷한 유형의 문어체에 가장 적합한 연결사로 여기고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이 원어민에 비해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대체 가능한 'but'을 적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된다(김향숙, 2017).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문장 앞에 사용이 가능한 'however'와는 달리 'but'은 문장 앞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학습이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조 연결사 교육에는 표 4를 참조하여 사용 빈도가 더 높은 'but'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2

장르별 however 빈도 (100,000개 당)



다음의 표 4는 장르별로 두 대조 연결사가 사용된 비율을 자세히 분석한 것이다. 모든 장르에서 확연한 차이로 'however' 보다 'but'의 사용 비율이 높다. 특히 SPOK와 FICT에는 거의 98% 이상이 'but'이며 'however'가 사용된 비율은 2%를 넘지 않는다. SPOK는 대조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문의 빈도가 높고 진술의 변경 및 반박, 제안의 거절, 대조적 의견의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Biber et al., 1999), 'but'이 높은 비율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FICT는 글의 특성상 사건이 전개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위키백과a, 2018), 이런 특징으로 'but'의 사용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장르별 사용 비율

장르	연결사	장르별 사용 비율	
ACAD	however	37.7%	100%
	but	62.3%	
MAGA	however	9.8%	100%
	but	90.2%	
NEWS	however	6.7%	100%
	but	93.3%	
FICT	however	2%	100%
	but	98%	
SPOK	however	0.9%	100%
	but	99.1%	

또한 NEWS와 MAGA에도 거의 90% 이상이 ‘but’이며 ‘however’가 사용된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 이 두 장르는 문어체임에도 불구하고 ‘however’보다 ‘but’이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NEWS는 작가의 주장이 표현되기보다 일어난 사건을 연결사의 사용 없이 시간 순으로 기술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NEWS에서 연결사가 필요한 경우에 원어민들은 ‘however’ 보다 ‘but’을 선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MAGA는 책과 신문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however’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but’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문적인 글(ACAD)은 다른 장르에 비해 ‘however’가 높은 비율(37.7%)로 사용되었다. 학문적인 글에서 원어민들은 대조되는 정보를 강조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만들어 내는데 용이한 ‘however’를 대조 연결사로 많이 사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장르에서 ‘but’이 더 높은 비율(62.3%)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however’는 학문적인 글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은 되지만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대조 연결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however’는 문어체 중에서 ACAD에 다소 많이 사용되며, NEWS, MAGA, 그리고 FICT에는 그 사용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 대신 NEWS, MAGA, FICT와 SPOK에는 ‘but’의 사용 비율이 90% 이상이다. 이처럼 두 연결사의 사용 비율에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점을 고려해보면 교육적인 맥락에서 두 연결사는 가급적 함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4에 제시한 수치를 활용한다면 특히 ‘however’를 학문적인 글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학습자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장르별 however와 but의 위치 비교

한국인 비원어민은 원어민에 비해 ‘however’를 문두에 과다하게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광윤, 2008; 고광윤, 이성운, 2008; 김향숙, 2017; Lee, 2004; Lee & Na, 2015). 원어민에 비해 사용 양상에 대한 직관이 부족한 비원어민이 적절한 대조 연결사를 적절한 위치에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 5는 장르별로 ‘however’와 ‘but’이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BSC)과 문장 안(ISC)에 사용된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장르별 however와 but 위치

연결사 (위치)	SPOK		FICT		NEWS		MAGA		ACAD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however (BSC)	32	0.5	34	0.8	79	3.3	169	5.2	364	24.7
however (ISC)	23	0.4	44	1.1	79	3.3	155	4.7	191	13.0
but (BSC)	6,087	99.1	3,805	98.0	2,205	93.3	2,952	90.1	918	62.3
합계		100		99.9		99.9		100		100

첫째, ACAD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대조 연결사 ‘but’이 BSC에 상당한 빈도로 사용되었다. 둘째, ‘however’가 6% 이상 사용된 장르를 살펴보면, NEWS와 MEGA에 이 연결사가 다소 비슷한 비율로 BSC와 ISC에 사용되었으며, ACAD에는 ISC(13%)보다 BSC(24.7%)에 이 연결사가 약 1.9배 가량 더 사용되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장르에서 ‘however’가 아닌 ‘but’을 BSC에 높은 빈도로 선호하는 양상이며, ‘however’는 NEWS와 MEGA의 BSC와 ISC에 적지만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며, ACAD에는 ISC보다 BSC에 더 많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BSC와 ISC에 사용된 ‘but’과 ‘however’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장르의 BSC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용된 ‘but’의 예시이다. 이 어휘는 ‘however’와는 달리 콤마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문장의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Baker, 1962). 이런 점에서 ‘but’은 특히 실시간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진 SPOK와 대화형식이 포함된 FICT의 BSC에 높은 비율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SPOK의 한 예시이다.

“If y'all don't care, nothing is going to happen, it's going to be

fine. **But** this is a battle you should be fighting because this is..." <SPOK, 2016: #1355>

둘째, ACAD의 BSC에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된 'however'의 예시이다. 이 연결사는 Conrad(1999)의 언급처럼 뒤에 이어지는 담화와 선행된 담화와의 관련성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관련성의 표현으로 다음의 예시에서처럼 BSC에 'however'가 다소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In building the street map, we give preference to terrain features like ridgelines by designing a distance measure that penalizes not walking along the terrain feature. **However**, how much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terrain features depends on the cost of the alternative routes, or how much easier it is compared to taking other routes." <ACAD, 2016: #61>

셋째, 학문적인 글(ACAD)의 BSC에 다소 높은 비율로 사용된 'but'의 예시이다. ACAD에는 'however' 외에도 'nevertheless' 'although' 등과 같이 대조를 의미하는 다양한 연결사들이 사용되기에 'but'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Biber et al., 1999)이 있지만 다음의 예시에서처럼 ACAD의 BSC에 'but'이 다소 빈번히 사용되었다.

"As a result, the new speech tradition is in tension with the two traditions. **But** unlike the tension between the liberal and republican traditions, which arguably are counterpoised, the tension created by the libertarian tradition is potentially corrosive." <ACAD, 2017: #122>

넷째, 'however'는 NEWS와 MEGA의 BSC와 ISC에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었는데, 다음은 MEGA의 ISC에 'however'가 사용된 예시이다. 문장 안에 'however'가 사용되어 선행된 진술을 강조하는 형태이다(Garner, 2009).

"Brain science draws legions of eager students to the field and countless millions in dollars, euros and renminbi to fund research. These endeavors, **however**, have not yielded major improvements in treating patients who suffer from psychiatric disorders for decades. <MEGA, 2016: #43>

정리하면, 대체로 원어민들은 모든 장르의 BSC에 'but'을 매우 빈번히 사용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however'는 전반적으로 적게 사용하면서 ACAD에는 ISC 위치보다 BSC 위치에 이 연결사를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장르(NEWS, MEGA)에서는 대체로 BSC와 ISC 위치에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용 양상은 특히 'however'를 문두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한국인 비원어민들의 경향과는 상당히 다르다. 표 5에 제시된 비율과 관련 예시들을 교육적인 맥락에 참조하면 학습자들의 대조 연결사 위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대조 연결사(however, but)의 사용 양상

비원어민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접할 것 같은 학문적인 글(ACAD)과 구어(SPOK)에서 두 연결사의 눈에 띄는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토대로 한 연구 내용이다. 먼저 'however'는 기본적으로 선행된 진술과 대조되는 정보를 강조하여 자신의 주장 등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선행된 진술의 인정(concession) 및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등에 사용된다(Biber et al., 1999; Conrad, 1999). 'but'은 구어에서 높게 나타나는 부정문과 진술의 변경 및 반박, 제안에 대한 거절, 대조적 의견 등을 표현하는 데에 잘 사용된다(Biber et al., 1999). 또한 선행된 진술에 'may'와 같은 추측성 표현이 있는 경우에 'but'은 선행된 진술을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Will, 2014).

위에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대조 연결사는 ACAD와 SPOK의 두 장르에서 다음의 예시에서처럼 대체로 선행된 진술과 대조되는 정보를 표현하는 양상에 사용된다.

> "Authorities questioned Phon's boyfriend after she went missing and quickly ruled him out as a suspect. They were, **however**, very anxious to talk to her husband." <SPOK, 2017: #1>

> "Because qualities are often not quantifiable and subject to predictive control they are of no use to many types of scientific inquiries, **but** that does not make them less real in the context of our lives." <ACAD, 2016: #207>

둘째, 다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예시에서처럼 'but'이 사용되어 선행된 진술과 대조되는 정보를 강조하면서 저자의 주장이나 관점이 표현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이 'however'의 사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즉 세 번째의 예시에서처럼 'however'는 ACAD에서 선행된 진술과 대조되는 정보를 강조하면서 저자의 주장이나 관점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반면 SPOK에

서는 이러한 양상이 드문 것으로 확인된다.

> "Thus, the Ninth Circuit seemed to suggest that the tribes could successfully sue the federal government, obtaining similar relief. **But** there would be significant impediments to proceeding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ACAD, 2017: #55>

> "I don't want to make him into a politician or make him into the same thing that he is running against. **But** he has got to realize that he is not going to win this race by appealing to the 20 percent or 30 percent of the Republican base." <SPOK, 2016: #1488>

> "Publicity, requirements of consistency in regard to precedent, and the need to refine theories for further inquiry are important in these types of inquiry. **However**, even in these inquiries the vital logic that relies on the qualitative is primary." <ACAD, 2016: #6>

셋째, 'however'는 다음의 첫 번째 예시와 같이 ACAD에서 선행된 진술의 인정과 함께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 및 자신의 주장을 구축하는 역할로 다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SPOK에서는 이러한 사용 자체가 드문 것으로 확인된다.

> "It is worth mentioning the fact that the results presented above indicate that, on VIL, Put3 can act as either a positive (BAT2) or negative (LEU1) modulator; **however**, the mechanisms underlying this Put3 dual role remain to be addressed." <ACAD, 2017: #64>

넷째, 다음의 예시에서처럼 'but'은 선행된 진술에 'seem' 또는 'assume' 등과 같은 추측성 표현이 있는 경우에 선행된 진술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구축하는 역할로 사용이 된다. 이러한 양상은 SPOK보다는 ACAD에서 조금 더 많이 확인된다.

>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is, for institutional religion is too often static, and men seem to have an almost vicious impulse to stiffen in their minds as soon as they become religious. **But** the conservative habits of organized religion find no sanction in the authoritative life of the Church; the cycle of Christian experience starts…" <ACAD, 2017: #20>

다섯째, Biber 등(1999)이 언급한 것처럼 일상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 구어(SPOK)에서 다음의 첫 번째 예시와 같이 부정문이나 대조적인 내용 등에 'but'이 잘 사용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두 번째 예시처럼 SPOK에 비해 ACAD에서 'but'이 부정문의 도입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예시는 'but'이 ACAD에서 대조적 의견의 표현 및 부정문을 도입하는데 사용된 경우이다.

> "I don't want my children to ever see him, **but** I'm not scared of him." <SPOK, 2017: #518>

> "Dewey explains how all inquiry starts with a hunch or impression, **but** this is not something psychical or psychological." <ACAD, 2016: #194>

여섯째, 대조 연결사 'however'와 'but'은 ACAD에서 선행된 진술의 주제 변경의 목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SPOK에는 다음의 예시에서처럼 'but'을 사용하여 주제를 변경하는 경우가 드물게 확인이 된다.

> "And Johnny Marx he wrote "Rudolph the Red Nose Reindeer". He was in that building, you know. And -- **but** anyway, she and Jerry got Jerry got signed to this company that had a lot of young talent…" <SPOK, 2016: #233>

마지막으로 ACAD와는 달리 SPOK에서는 다음의 예시에서처럼 인칭 대명사가 자주 사용되는 양상이 보인다.

> "You know, it's interesting who the president is having dinner with, **but** I didn't think it was a big deal but he did." <SPOK, 2017: #35>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두 연결사는 선행된 진술과 대조되는 내용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지만 그 사용 양상에서 장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선행된 진술과 대조되는 정보로 자신의 주장과 관점을 표현하는 경우에 'but'은 ACAD와 SPOK에서 다 사용되지만, 'however'는 ACAD에서는 사용되는 편이지만 SPOK에서 이러한 양상이 드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however'는 선행된 진술을 인정하면서 내용의 일관성 유지 및 저자의 주장을 구축하는 역할로 ACAD에서 사용되는 편이지만 SPOK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조 연결사를 활용하여 주제를 변경하는 양

상은 SPOK에서 ‘but’을 드물게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대조 연결사의 사용 양상은 연결사와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인 사용 빈도는 ACAD를 제외하고 ‘however’에 비해 ‘but’이 사용된 빈도가 상당히 높다. 교육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빈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CAD와 SPOK의 문장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두 대조 연결사인 ‘however’와 ‘but’이 비슷하게 사용이 되면서도 장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조 연결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연결사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문두에 높은 빈도로 배치하는 경향을 지닌 비원어민들의 언어학습에 적절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최근의 미국 영어 자료에서 ‘however’와 대체 가능한 ‘but’의 사용 양상을 5가지 장르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원어민들은 모든 장르에서 ‘however’ 보다 ‘but’에 상당히 의존하는 양상을 지닌 것으로 검토되었다. ‘but’은 학문적인 글(ACAD)에서만 약 60%가 사용되었고 나머지의 장르에서는 90% 이상 사용되었다. 반면 ‘however’는 ACAD에 약 38%가 사용되었고 잡지(MAGA)와 신문(NEWS)에 사용된 비율은 10%를 넘지 않았다. 원어민들은 모든 장르에서 확연한 차이로 대조 연결사 ‘but’을 선호하고 ‘however’는 학문적인 글에서 다소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원어민들은 모든 장르의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BSC)에 ‘but’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적은 비율로 사용한 ‘however’는 ACAD에서는 문장 안(ISC)보다 BSC에 조금 더 많이 사용하였고, NEWS와 MEGA에서는 BSC와 ISC에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예시를 통해 ACAD와 SPOK에서 나타나는 몇몇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두 대조 연결사는 비슷한 사용 양상도 있지만 각각의 연결사와 장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드러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라 비원어민의 대조 연결사 사용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어체라고 해서 반드시 대조 연결사로 ‘however’가 더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however’가 ACAD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ACAD에 가장 선호되는 연결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결사가 문어체의 다른 장르인 MEGA, NEWS, FICT 등에 사용되는 빈도는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FICT에 사용된 비율이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however'가 문어체에 반드시 선호되지는 않는다.

둘째, 문어체라도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BSC)에 'however'를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용 비율이 확연히 높은 'but'이 BSC에 선호된다. 한국인 비원어민들이 원어민에 비해 'however'를 높은 빈도로 문두에 사용하는 경향과 관련해서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결과의 수치를 교육상황에 참조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결사와 장르에 따라 빈도, 위치, 구체적인 사용 양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두 대조 연결사는 함께 학습이 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장르에 따른 이해가 수반될 필요도 있다.

셋째, 본 연구가 예시로 제시한 사용 양상을 교육상황에 참조하면 대조 연결사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원어민은 주제 변경의 목적을 위해 SPOK에서 'but'을 드물게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조 연결사를 이러한 목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측면 등이다(Ⅳ장 4절 참조).

넷째,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COCA 웹사이트 등을 교육상황에 활용한다면 실제 사용되는 대조 연결사의 사용 양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 코퍼스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의 일부를 분석하였지만 COCA 코퍼스(https://corpus.byu.edu/coca/)는 현재 대규모의 단어로 구축되어 있고 장르에 따른 자세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비원어민이 원어민에 비해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높은 빈도로 문두에 위치시키는 문제는 중등과정의 영어 교과서에서 확인된다(고광윤, 2008; 김향숙, 2017). 따라서 비원어민들이 'however'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와 교사의 교육방식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중등과정의 교과서 개발에 참조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등과정의 영어학습, 특히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쓰기 학습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실제적인 예시를 교육자료로 재구성하여 사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김향숙, 2017).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조 연결사에 대한 원어민의 사용 양상을 수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영어는 이미 탈국가화 되어서 이제는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 언어의 주인이 되었고(Smith, 1976), 또한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영어(World Englishes)가 인정되는 측면 때문이다(Kirkpatrick, 2014; Yook & Ryu, 2015). 그럼에도 영어 사용에서 대화 상대자간 서로 수용될 만한 언어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훨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분석한 결과를 비원어민들의 언어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에 수집된 미국 영어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어 사용권

전문가들이 작성한 더 큰 규모의 코퍼스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광윤. (2008). 교과서 영어의 영어다움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기능어의 쓰임을 중심으로. *영어학연구*, *26*, 1-19.

고광윤, 이성운. (2008). 한국 영자신문 영어의 코퍼스 바탕 연구. *언어연구*, *23*(4), 601-619.

김향숙. (2017). 영어 교과서에서 대조 연결사 'however'와 'but'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영어어문교육*, *23*(2), 17-36.

위키백과a. (2018). 소설. Retrieved March 20,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4%A4.

위키백과b. (2018). 잡지. Retrieved March 20,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ko.wikipedia.org/wiki/%EC%9E%A1%EC%A7%80.

Altenberg, B., & Tapper, M. (1996). The use of adverbial connectors in advanced Swedish learners' written English. In S. Granger (Ed.), *Learner English on computer* (pp. 80-93). London and New York: Longman.

Back, J. H. (2012). A corpus-based study of adverbial connectors in Korean EFL students' academic writing: Cohesion and rhetorical patterns. *Studies in Modern Grammar*, *69*, 117-147.

Baker, S. (1962). *The practical stylist*.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Harlow, UK: Longman.

Bolton, K., Nelson, G., & Hung, J. (2002). A corpus-based study of connectors in student writing: Research from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in Hong Kong (ICE-HK).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7*(2), 165-182.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2nd ed.). Rowley, MA: Newbury House.

Chen, C. W. (2006). The use of conjunctive adverbials in the academic papers of advanced Taiwanese EFL lea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1*(1), 113-130.

COCA. (2018).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Retrieved

December 20,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corpus.byu.edu/coca/.

Conrad, S. M. (1999). The importance of corpus-based research for language teachers. *System*, *27*, 1-18.

Field, Y., & Yip, L. (1992). A comparison of internal conjunctive cohesion in the English essay writing of Cantonese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of English. *RELC Journal*, *23*(1), 15-28.

Flowerdew, L. (2008). *Corpus-based analyses of the problem-solution pattern: A phraseological approac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Fogarty, M. (2013). Starting a sentence with "however": Right or wrong?. Retrieved March 18,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quickanddirtytips.com/education/grammar/starting-a-sentence-with-however-right-or-wrong?page=2.

Garner, B. A. (2009). *Garner's modern American us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anger, S., & Tyson, S. (1996). Connector usage in the English essay writing of native and non-native EFL speakers of English. *World Englishes*, *15*(1), 17-27.

Jangarun, K., & Luksaneeyanawin, S. (2016). Discourse connector usage in argumentative essays by American and Thai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20*(1), 95-112.

Kim, H. S., & Ahn, S. H. (2012). A corpus-based study of connectors in editorials of Korean and American English newspaper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5*(4), 61-79.

Kirkpatrick, A. (2014). World Englishes. In C. Leung & B. V. Street(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English studies* (pp. 33-45). New York: Routledge.

Lee, E. J. (2004).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Korean EFL learners' use of conjunctive adverbials. *English Teaching*, *59*(4), 283-301.

Lee, S. B., & Na, Y. H. (2015). A comparative analysis of adversative linking adverbials in argumentative writing corpora.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0*(4), 1015-1040.

Liu. D. (2008). An across-register corpus study and its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3*(4), 491-518.

Merriam-Webster. (2018). Learner's dictionary. Retrieved March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learnersdictionary.com/

definition/sentence.

Min. S. J. (2011). A corpus-based analysis of EFL learners' use of discourse markers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4), 177-194.

Na, Y. H. (2011). Cohesive devices in CMC texts produced by American and Korean EFL writers. *Linguistic Research*, *28*(3), 743-771.

Park, Y. Y. (2013). How Korean EFL students use conjunctive adverbials in argumentative writing. *English Teaching*, *68*(4), 263-284.

Pullum, G. K. (2010).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elements of style. *English Today, 26*(2), 34-44.

Ro, S. H., & Na, Y. H. (2012). Use and misuse of linking adverbials: A corpus-based study on NS and NNS writings. *English21*, *25*(3), 291-317.

Rower, R. (2013). Subjects and finite verbs. Retrieved March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grammar-once-and-for-all.com/syntax/subjects-and-finite-verbs/.

Smith, L. (1976). English as an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RELC Journal*, 7(2), 38-43.

Strunk, W. (1918). The elements of style. Retrieved March 20,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rockford.com/wrrrld/style.html.

WIKIPEDIA. (2018). Finite verb. Retrieved March 20,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en.wikipedia.org/wiki/Finite_verb.

Will, W. (2014). Exploring concession and contrast. Retrieved March 20,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random-idea-english.blogspot. Kr/2014/08/exploring-concession-and-contrast.html.

Yook, C. M., & Ryu, H. Y. (2015). World Englishes and culture teaching in the Korean EFL Contex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1*(3), 195-211.

Yoon, H. S. (2006). A corpus-based analysis of connectors in Korean students' essay writing.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2*(2), 159-178.

Zwicky, A. M., & Kenter, D. W. (2007). *Avoid vagueness? The case of sentence-initial linking however*. Retrieved March 15,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eb.stanford.edu/~zwicky/however.SemFest.out.pdf.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Tertiary

김향숙
한양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사근동)
Email: heartk012@hanyang.ac.kr

Received in October 16th, 2018
Reviewed in November 27th,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8